KMI 북방물류 동향리포트

KMI 북방물류 동향리포트 제81호 2019년 3월 13일

항만물류연구본부 국제물류연구실 △Tel.+82-51-797-4665 Fax.+82-51-797-4659 △총괄:박성준 러시아연구센터장 △감수:길광수 명예연구위원 △편집:김엄지 연구원

주요내용

통계로 보는 북방(p.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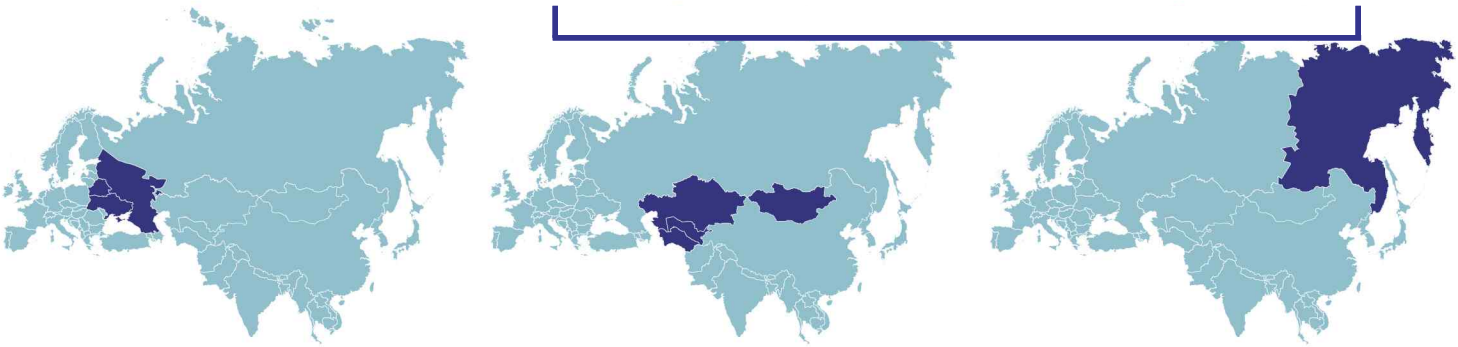
- 경기불황으로 금년 러시아 교통물류시장 성장률 저조 예상

주요 동향(p.4)

- 동부(p.4)
  - 제9차 북·러 협력 위원회 개최
  - 러 정부, 2035극동발전프로그램 준비… 올해 5차 동방경제포럼서 공개
- 중부(p.9)
  - 남북국제운송회랑(INSCT) 활성화를 위한 공동물류기업 설립 예상
  - 카자흐스탄, 베트남 물류운송의 핵심 노선이 될 전망
- 서부(p.13)
  - '북위도 루트(Северный Широтный Ход·СШХ) 컨세션', 자본교부금 지불 불가로 중단 위기
  - 노보로시스크항, 올 1~2월 러시아 최대 물동량 기록…북극 및 발트해 신규 항만시설 물동량도 약진

주요통계(p.18)

- 2018년 러시아 지역 및 분기별 1m² 당 주택 매매 가격



KMI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서부권역 : 러시아 서부,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등 / 중부권역 : 중앙아시아, 몽골 / 동부권역 : 러시아 극동, 시베리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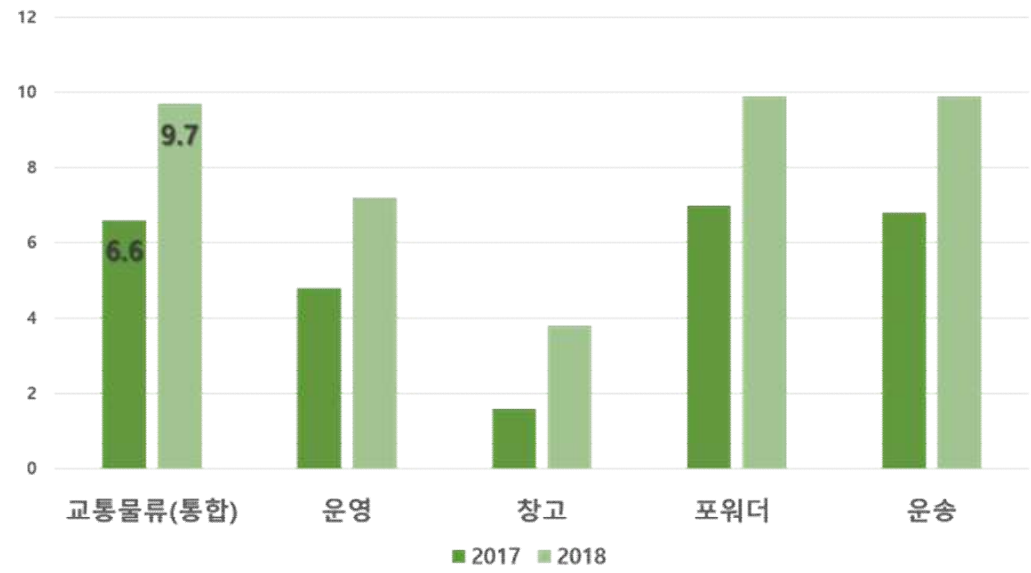
통계로 보는 북방

경기불황으로 금년 러시아 교통물류시장 성장률 저조 예상

- 2017년 러시아 교통물류시장 성장률은 6.6%였고, 2018년에는 9.7% 성장하며 시장규모가 3조 5,670억루블에 달함
  - 이는 루블화 급락세의 안정 및 유가상승, 아태지역으로의 자원 수출량 증가에 따른 것임

러시아 교통물류시장 성장률 비교(2017~2018)

(단위: %)



자료: **Росстат**, **МЭР РФ**, **данные компаний**, **оценка** M.A.Research(검색일: 2019년 3월 11일)

- 다만, M.A.Research 보고서에 따르면 금년 러시아 교통물류시장 성장률은 3.3%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
  - 이는 중·미 무역전쟁의 여파로 인한 수출규모 감소, 항만 물동량 증가세 둔화[1)]

1) 2017년 항만 물동량 증가율은 9%였으나, 2018년에는 4%로 둔화됨

및 러시아 은행(Sberbank, VTB 등)으로의 대러 제재 대상 확대 적용으로 인한 결과로 판단됨

- 현재 러시아 정부가 중앙은행의 높은 금리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는 등 안정되었던 통화정책이 재차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점 또한 러시아 교통물류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음

참고자료 : https://logistics.ru/upravlenie-logistikoy-i-kompaniey/v-2019-godu-tempy-rosta-rynka-transportno-logisticheskikh-uslug(검색일: 2019년 3월 11일)

김엄지 연구원

051-797-4776, umjikim@kmi.re.kr

동부권역 주요 동향

제9차 북·러 협력 위원회 개최

- 제9차 북·러 무역경제 및 과학기술협력 위원회가 올해 3월 7일 모스크바에서 개최됨
  - 본 위원회에는 러시아 극동북극개발부(前 극동개발부)[2] 및 북한 대외경제부가 참석했으며 양국 간 무역 및 경제협력 문제와 교통 분야의 공동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함

제 9차 북·러 무역경제 및 과학기술협력 위원회

자료: https://minvr.ru/press-center/news/21304/?sphrase_id=848245(검색일: 2019년 3월 9일)

- 이번 만남에서 양국은 무역 및 경제관계 확대를 위한 교역량 증대 및 잠재력 등에 관해 서로의 의향을 확인함

2) 2019년 2월 26일 러시아 대통령령에 따라 극동개발부에서 극동북극개발부로 정식 명칭이 바뀜. https://tass.ru/politika/6161204(검색일: 2019년 3월 9일)

- 극동북극개발부에 따르며 교역은 UN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에 따라 엄격히 수행될 것이며 금지되지 않은 상품의 교역량을 늘리기 위해 논의함

▪ 북한측 대표는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정기적인 협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함

- 그 동안 무역, 경제, 과학 및 기술 협력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이번 회의와 같이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위원회가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임

▪ 이번 위원회의 핵심 의제 중 하나는 교통 분야에서 공동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으로 두만강을 건너는 차량 교량과 나진-하산 철도 건설이 있음

- 극동북극개발부는 러시아와 북한 국경 사이의 두만강 차량교량 건설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를 함
- 러시아 측은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설계 및 예산 등을 논의하고자 함

▪ 제10차 북·러 무역경제 및 과학기술협력 위원회는 2020년 평양에서 개최될 예정임

참고자료 : https://minvr.ru/press-center/news/21304/?sphrase_id=848245(검색일: 2019년 3월 9일)

김은미 현지 리포터(국립극동교통대학교)
051-797-4776, usea1004@gmail.com

▌러 정부, 2035극동발전프로그램 준비… 올해 5차 동방경제포럼서 공개

제2차 극동지역 경제성장 촉진을 위한 전략회의

자료: https://minvr.ru(검색일: 2019년 3월 13일)

- 최근 모스크바에서 열린 제2차 극동지역 경제성장 촉진을 위한 전략회의에서 극동 내 인프라 및 투자프로젝트를 점검하고 향후 연방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함

- 이번 회의는 극동관구 지방정부 관료 및 투자기업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알렉산드르 크루티코프 극동북극개발부 차관 주재로 2개의 세션으로 진행됨
  - 첫 번째 세션에서는 11개의 극동관구 주 대표들이 보다 확고한 경쟁력있는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해 더 많은 투자자 유치가 시급하다고 공감대를 형성함
  -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법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공동의 플랫폼을 개발해 나가자는데 합의함
  - 이어 두 번째 세션에서는 현재 극동에서 진행 중인 인프라 및 투자프로젝트 진척사항을 점검하고 지역경제발전 가속화를 위한 정부차원에서의 지원방안 등이 논의됨

- 11개의 극동관구 주정부들은 지역경제발전계획에 대한 보고서를 오는 4월말까지 극동북극개발부에 제출해야 함
  - 앞으로 각 주정부에서 마련된 개발계획들은 극동러시아의 성장잠재력을 결정하는 지표로 활용될 뿐 아니라 장기적 관점의 극동발전프로그램 수립에 참고가 될 것이라는 관계자의 설명임

- 한편 2035 극동발전프로그램에 국민들이 직접 제안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돼 운영 중에 있음
  - 작년 제4차 동방경제포럼 이후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총리는 러시아 국민이면 누구나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도록 포털사이트 dv2025.rf를 개설해 국민의견을 접수하고 있음
  - 현재까지 7만명이 넘는 사용자가 시스템에 등록돼 15만여 건의 제안을 남겼으며, 오는 4월 1일까지 국민제안을 접수할 예정임

- 관계자에 따르면, 2035극동발전프로그램은 올 9월 제5차 동방경제포럼에서 발표될 계획임

- 지난해 제4차 동방경제포럼 기조연설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극동개발은 러시아의 절대 우선순위이며, 극동에 강력한 국제협력 및 통합, 비즈니스·투자활동, 교육과학 및 문화거점 구축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었음
  - 그러면서 푸틴 대통령은 정부 각 부처에 일반국민, 기업,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 새로운 극동발전프그램을 수립하라고 지시한 바 있음

참고자료 : https://minvr.ru/press-center/news/21251/(검색일: 2019년 3월 6일)

전명수 리포터(국립블라디보스톡경제서비스대)

070-5044-9502, msjeon1976@gmail.com

중부권역 주요 동향

▌남북국제운송회랑(INSCT) 활성화 위한 공동물류기업 설립 예정

- INSTC 회원국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남북국제운송회랑의 운송능력 향상을 위한 공동물류기업 설립에 합의함
  - 지난 3월 4일 테헤란에서 열린 INSTC의 7번째 협의회에서 이란 Eslami 장관은 INSTC 회원국[3]들에게 공동물류회사를 설립할 것을 촉구했으며 이에 각국이 합의함에 따라 향후 기업설립 추진이 예상됨
  - 이 공동물류기은 INCTS 전체 운송능력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
  - 또한 회랑의 인프라를 개선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 회랑 건설 프로젝트 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등 회원국 및 주변국가의 적극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언급함
- 이란은 자국 운송네트워크 향상뿐 아니라 INSCT의 수용능력 향상을 위해 INSCT와 연계된 철도망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올 3월 164km 길이의 Qazvin-Rasht 구간 철도가 개통되었으며, 이는 이란과 러시아의 발트해 연안항을 연결해 러시아 철도를 페르시아만과 인도 철도에 연결할 수 있는 전략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 Chabahar-Zahedan 구간 철도는 현재 건설 중에 있으며 이는 남-북의 항만과 국경을 연결할 예정임
  - 또한 Rasht-Astara 철도 건설이 시작될 예정이며, 향후 회랑의 수용력을 높이기 위해 이란의 동-서를 연결하는 철도 건설도 계획하고 있음
- INSCT는 이란이 아제르바이젠과 러시아의 항만과 철도를 연결해 인도 뭄바이에서 핀란드 헬싱키까지 화물운송을 용이하기 하도록 하는 운송경로임
  - 이는 7,200km 길이의 해상-철도-육상 복합 운송 경로이며, 인도를 포함한 4개

3) INSCT는 러시아, 아제르바이젠, 이란, 인도 4개국에 걸치 운송경로이며, 회원국은 4개국을 포함해 터키,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타지키스탄, 우크라이나, 키르키스스탄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국이 2008년부터 추진을 계획해 2016년 INSCT 건설 프로젝트가 최종 합의됨

- INSCT가 완공되면 인도 뭄바이에서 이란의 반다르압바스항(Port of Bandar Abbas)을 거쳐 아제르바이젠 바쿠항까지 운송이 가능함
- 또한 러시아 국경을 거쳐 아스트라한(Astrakhan)과 상트페테르부르크(St. Petersburg)는 물론 나아가 유럽까지 연결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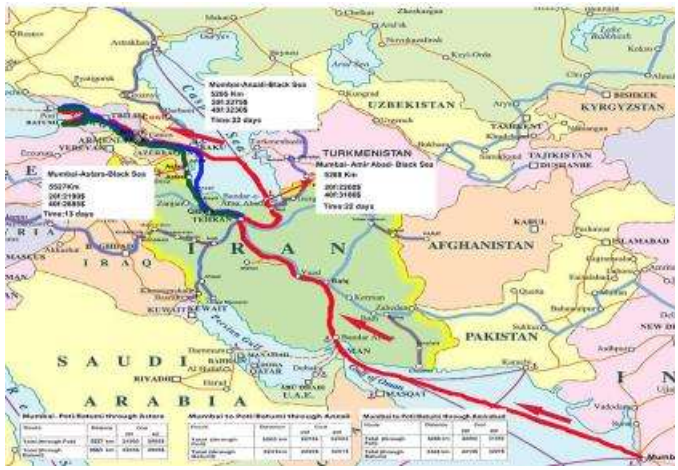
▪ INSCT는 아시아의 소비재부터 중부 유라시아의 천연자원, 유럽의 수출상품에 이르기까지 모든 화물의 운송 시간을 단축함으로써 물류 효율을 기대할 수 있음

- 이러한 복합운송 경로는 인도-유럽 간 운송시간을 현행 40일에서 15일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또한 INSCT는 인도와 유럽 간 잠재적으로 약 1,000만톤의 수송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INSCT 경로

자료: www.malaysiasun.com

INSCT 철도 건설 구간



자료: https://en.mehrnews.com

참고자료 : en.mehrnews.com, malaysiasun.com (검색일: 2019.3.8)

김보경 연구원

051-797-47674, kimb@kmi.re.kr

카자흐스탄, 베트남 물류운송의 핵심 노선이 될 전망

- 지난 2018년 한 해 카자흐스탄과 베트남 간 무역 규모는 4억 6,720만달러 수준이었으며, 베트남은 2017년 유라시아경제연합(Eurasian Economic Union)과 무역 협정을 맺음
  - 사실 상 유럽 권역과 베트남은 지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상이성이 큰 만큼 상호 교역이 활발하지 않을 것으로 인식되나, 동남아시아 지역의 대 유럽 지역 물류 운송은 카자흐스탄 및 서부 카스피 해 노선을 중심으로 발전할 것이라는 전망임
  - 카자흐스탄 외무부는 3월 2주차 브리핑에서 베트남 하노이(Hanoi) 발 화물이 중국으로부터 카자흐스탄, 러시아를 경유해 단 20일 만에 독일 뒤스부르크(Duisburg)까지 도착할 예정이라고 언급함
  - 한편 지난 2016년 카자흐스탄 국영철도회사 '카자흐스탄 테므르 졸르(Kazakhstan Temir Zholy· KTZ)'와 베트남 대사관 측은 물류운송에 관한 논의를 진행한 바 있었음
  - 당시 KTZ 직원들은 중국과 접경에 있는 베트남 동당(Dong Dang)과 라오카이(Lao Cai) 지역을 답사하고, 기존 45~50일 소요되는 해상 노선보다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판단함

- 베트남 철도공사 관계자는 새로운 물류운송 노선을 통해 유럽으로의 수출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함
  - 특히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의 경우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육류나 유제품을 보다 신속히 공급할 수 있고 베트남은 해산물과 열대 과일 등을 공급할 수 있는 호혜적인 효과를 기대한다고 언급함
  - 베트남의 수출 주력 제품으로는 전화기, 컴퓨터, 전자 부품 및 쌀, 캐슈너트, 후추와 같은 농산물이 포함되며. 카자흐스탄으로부터는 화학물질, 광석, 광물 및 밀 등을 수입하고 있음
  - 현재 카자흐스탄은 중국 롄윈강(Lianyungang) 터미널을 통해 베트남 동당 터미널로 육상 수출 노선이 구축되어 있는 상태임

- 카자흐스탄은 자국의 운송 및 해운 분야에 있어 석유와 가스 수출에만 국한

되지 않는 경제적 다변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

- 아울러 중국의 도로 및 철도, 해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일대일로(Belt and Road Initiative) 경제권 구상에 있어서도 카자흐스탄은 유라시아 무역 규모 확장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평가임
- 한편 카자흐스탄과 중국은 유라시아 물류운송의 주축이 되기 위해 카자흐스탄 국경 지역의 알튼콜(Altynkol)에서 6㎞ 떨어진 호르고스(Khorgos) 특별 경제구역(Special Economic Zones)을 설치한 바 있음
- 호르고스 특별 경제구역 설치로 인해 중국 서부로부터 서유럽까지 8,445㎞에 이르는 육로 운송이 가능해졌으며, 한 달에 이곳을 통과하는 열차는 평균 65대, 약 6,200TEU의 운송이 이루어지고 있음

참고자료 : CASPIANNEWS.COM (검색일: 2019년 3월 12일)

오상호 연구원(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연구소)
031-330-4145, editor405ca@gmail.com

서부권역 주요 동향

▌'북위도 루트(Северный Широтный Ход·СШХ) 컨세션', 자본 교부금 지불 불가로 중단 위기

북위도 루트

자료: Livejournal 자료를 바탕으로 번역. https://lavexav.livejournal.com/67045.html (검색일: 2019년 03월 03일)

- '북위도 루트(СШХ)'는 총 686km에 달하는 수송루트로, 북극 지역의 서(西) 시베리아 매장지에서 발트해, 백해, 바렌츠해 그리고 카라해 항구까지 1,000km에 달하는 운송 거리를 단축하는 새로운 운송 루트임
  - '북위도 루트'는 러시아 북극 지역 천연자원 개발을 위한 운송 시스템과 인프라 건설을 위한 것
  - '북위도 루트 프로젝트'는 2016년 10월 '러시아 철도(РЖД)'와 '야말-네네츠 자치구' 간 합의에 따른 옵스카야, 살레하르드, 나딤, 판고디, 노브이 우렌고이, 카로트차예보를 연결하는 2,300억루블 이상 규모의 프로젝트임

- 2016년 12월 모스크바에서 '컨세션 유한책임회사 북 위도 루트(ООО СШХ)'가 등록되었고, '유한책임회사 스페츠트란스트로이(ООО Спецтрансстрой)'가 50.1%, 그리고 러시아 철도(РЖД)의 '자회사(КРП-Инвест)'가 49.9% 지분을 소유하고 있음
- 2018년 10월 '러시아 연방 연방철도청(Росжелдор)'과 '컨세션 유한책임회사 북 위도 루트'는 "북위도 루트 건설에 관한 컨세션 협정"을 체결했음

■ '북위도 루트 프로젝트', 2019~2020년 100억루블 이상의 사업 자본 교부금 확보에 난항

- 2018년 10월 '연방철도청'과 '컨세션 유한책임회사 북 위도 루트' 간 컨세션 협정에 따른 연방 재정의 자본 교부금 규모는 총 127억 루블로, 2021년까지 연도별 금액은 아래와 같음
- 동 프로젝트는 철도 인프라 건설 확대 및 현대화를 위한 복합 계획을 채택했고, 2024년까지의 기금 규모는 아래와 같음(전체 규모는 변함없음)
- 그러나 '2019년과 2020~2021년 계획 기간 동안의 연방 재정에 관한 법안'에서는 동 프로젝트를 위한 기금으로 2021년의 18억 8,800루블만을 산정했음

연방 재정의 자본 교부금 규모

2018년 협정 내용		2019년 변경 내용	
연도	금액(단위: 루블)	연도	금액(단위: 루블)
2019년	9억	2019년	9억
2020년	99억	2020년	64억
2021년	19억	2021년	19억
-	-	2022년	35억
합계	127억	합계	127억

- "프로젝트 자본 규모는 조건에 따라 변화할 수 있으며, 이는 러시아 연방 정부 결정에 의해서만 이루어 질 수 있음. 양도인의 자본 교부금 지불 불이행은 컨세션 사업 참여자들의 발의를 통해 중단될 수 있음"을 문서에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러 연방의 자본 교부금 지급 불이행 시 해당 사업이 중단될 수도 있음

- 동 프로젝트는 2019년에 자본 교부금을 통해 토지 문제를 해결하고, 2020년 착공을 시도했으나, 연방 차원의 추가 조치를 통해 자본 교부금 지불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토지 문제를 비롯해 기타 관련 문제들의 해결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임

참고자료 : https://trans.ru/news/kontsessiya-po-severnomu-shirotnomu-hodu-mozhet-bit-prekraschena-iz-za-neviplati-kapitalnogo-granta

(검색일:2019년 03월01일)

http://www.morvesti.ru/detail.php?ID=73366(검색일: 2019년 03월 03일)

이현아 리포터(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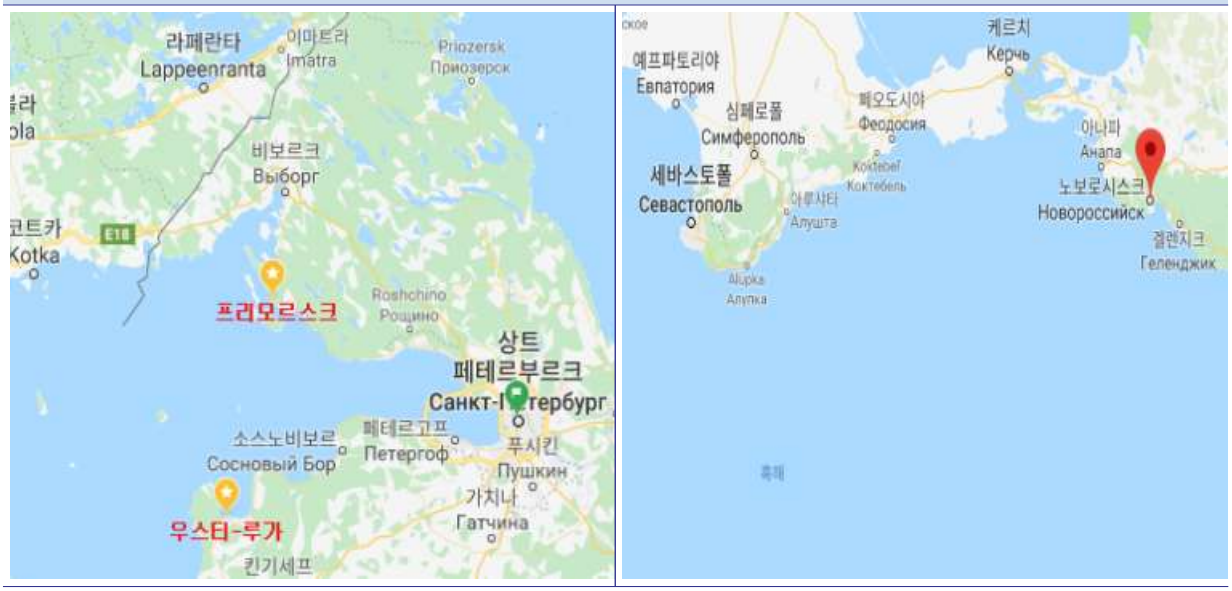
gusdk6534@nate.com

노보로시스크항, 올 1~2월 러시아 최대 물동량 기록…북극 및 발트해 신규 항만시설 물동량도 약진

- 러시아 연방 해운·내륙수운청이 발표한 2019년 1~2월 항만별 물동량 순위에서 흑해에 위치한 노보로시스크(Novorossiysk)항이 1위를 차지했음. 뒤이어 우스티-루가(Ust-Luga, 발트 해) 항이 2위를, 보스토치니(Vostochny, 태평양)항이 3위로 그 뒤를 이었음
  - 전통적으로 러시아 흑해 지역의 전략적 요충지인 노보로시스크(Novorossiysk, 크라스노다르 지방 소재)항의 2019년 1~2월 환적 물동량은 전년 동기 대비 5.3%가 상승한 2,568만 9천톤을 기록했음
  - 발트해 지역에서 비교적 최근에 건설된 항만 시설인 우스티-루가(Ust-Luga, 레닌그라드 주 소재)항의 2019년 환적량은 2018년 1~2월 대비 2.7%가 증가한 1,702만 8천톤을 기록했음
  - 극동 지역 최대의 부동항인 보스토치니(Vostochny, 연해주 소재)항의 2019년 첫 2개월 환적량은 전년 동기 대비 5%가 상승한 1,133만 5천톤을 기록했음
  - 위 3개 항은 2018년 환적물동량 순위에서도 동일한 위치를 차지했으며, 이는 3개 항이 러시아 해운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보여주고 있음

- 또한 4위를 기록한 무르만스크(Murmansk, 북극해), 5위를 기록한 프리모르스크(Primorsk, 발트해)항을 비롯한 북서지역 항만의 약진이 주목받았음
  - 북극 지역 최대 부동항인 무르만스크(Murmansk)항의 해당 기간 환적물동량은 1,066만 7천톤을 기록했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7.2% 상승한 수치임
  - 또한 5위를 차지한 프리모르스크(Primorsk, 레닌그라드 주 소재) 항 환적물동량 또한 5.5% 상승한 910만 4천톤을 기록했음. 반면에 상트페테르부르크 항(Big Port Saint Petersburg)은 전년대비 0.2%가 감소한 901만 1천톤을 기록하며 환적물동량 Top-5에 들지 못했음
  - 순위에 들지 못했지만 북극해의 사베타(Sabetta, 사하 공화국 소재)항은 환적물동량 부문에서 비약적인 성장을 달성했으며, 전년 대비 155.8%가 상승한 494만 4천톤을 기록했음. 이는 '야말-LNG' 터미널 프로젝트에 힘입은 바가 큼

북서지역 주요 환적항만시설(좌: 발트해 / 우: 흑해)



자료: Google Maps 2019

참고자료 : http://www.morflot.ru/novosti/lenta/n4015.html(검색일: 2019년 3월 12일)

조용성 현지리포터(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학교)

+7 981-158-65-06, mirinae2929@gmail.com

주요 통계

2018년 러시아 지역 및 분기별 1m² 당 주택 매매 가격

(단위: 루블)

지역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연해주	70,239	70,461	72,695	73,135
하바롭스크주	65,311	66,313	68,011	67,962
모스크바주	81,168	84,422	86,016	86,166
상트페테르부르크	106,571	106,750	107,833	109,346
부랴트 공화국	40,318	40,172	40,191	40,321
자바이칼주	49,017	49,277	49,836	50,042

자료: http://www.gks.ru/dbscripts/cbsd/DBInet.cgi?pl=1905001(검색일: 2019년3월6일)

Peter Ruzankin 연구보조원(KMI 러시아연구센터)
7-914-345-3947, aquillar7@gmail.com